



In brief

발행일: 2024년 5월 7일

GX In brief INT2024-09

IFRS 18 – 일반 기업의 주요 재무 이슈

주요 내용

IASB는 손익계산서에 개정에 초점을 맞춘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In brief - IFRS 18 제정 – 재무성과 보고방식의 재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In brief 는 외환차이, 파생상품 손익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의 분류 등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주요 재무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슈가 무엇인가?

2024년 4월 9일, IASB는 기업 성과 보고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IFRS 18에 도입된 새로운 요구 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업들의 재무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IFRS 18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것이며, IAS 1의 다른 기준 원칙 중 상당수는 제한적인 변경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IFRS 18은 다음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과 측정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 및 표시방법

기업의 관점에서 IFRS 18의 주요 재무이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다른 부채와 비교할 때, 관련 수익과 비용의 특정 분류를 요구하는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에 대한 새로운 개념
- 외환차이,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수단 손익 분류에 대한 새로운 세부적인 요구사항

손익계산서의 구조

분류의 범주

IFRS 18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규정하는 목표는 손익계산서 보고의 다양성을 줄여 투자자의 정보 이해가능성과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범주로 분류되며, 필수적인 중간합계를 요구합니다.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5 개의 범주인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그리고 중단영업으로 구분됩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분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3 개의 주요 범주는 영업, 투자 및 재무입니다.

이러한 항목의 분류는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In brief에서는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요 사업활동이 아닌 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논의합니다. 은행과 보험회사와 같이 이러한 활동을 주요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적용됩니다. IFRS 18을 적용하여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활동이 될 것입니다.

IFRS 18에서는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사업활동이 그렇다면 다른 업종에서는 영업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특정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요 사업활동인 기업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In brief '[IFRS 18 – 금융회사를 위한 이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PwC 견해 – 주요 사업활동에 대한 판단

손익계산서의 범주별 분류는 보고기업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간의 분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 특히 대기업은 주요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요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FRS 18은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 무엇인지 증거의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회계처리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IFRS 18의 3 개의 주요 범주는 영업, 투자, 재무이며 일반기업을 위한 이러한 범주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과 관련되는 손익•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즉, 잔여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는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조달에만 관여되는 부채와 관련된 모든 손익(예: 은행차입금)• 기타 부채의 이자비용 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예: 연금부채의 현재가치할인 상각)

일반적으로 기업은 부채와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조달만을 위한 거래로 다음의 거래가 고려됩니다.

- 현금을 받고, 나중에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을 상환
- 다른 부채와 교환하거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소멸되는 부채(예를 들어, 기업이 기존 부채를 리파이낸싱하는 경우); 또는
-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자기지분상품을 현금으로 재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만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채는 매입채무, 리스부채 및 일반상품소비대차 등을 포함하여 '기타부채'로 분류될 것입니다.

PwC 견해 – 수익과 비용의 분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비교 – IFRS 18에서 요구하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류는 IAS 7을 적용하여 현금흐름표에서 표시되는 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약정의 현금유출(원금과 이자)은 IAS 7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표시됩니다(아래의 'IFRS 18에 따른 기타변동' 참조). 반면, IFRS 18을 적용하면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영업 범주로 분류되고,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될 것입니다.

자금조달부채와 금융부채의 비교 – IFRS 18에 따른 '자금조달만을 포함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IAS 32에서 정의하는 금융부채로만 구성됩니다. 이것은 일부 IFRS 9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됨을 의미합니다.

복합계약 –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주계약부채(금융 또는 비금융)에 대한 손익의 분류는 복잡하고, 다음의 요소들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는지 여부;
- 자금조달만을 포함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인지 여부; 그리고
- 복합계약의 분류

IFRS 18은 기업이 특정 합계와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변화는 '영업손익'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표시를 요구하는 다른 중간합계는 아래의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입니다.

외환차이의 분류

IFRS 18은 IAS 21을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외환차이의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환차이는 과도한 원가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의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서 분류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외화채권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영업 범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리고
- 자금조달만으로 인한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재무 범주로 분류될 것입니다.

PwC 견해 – 외환차이

개별항목 – 현재 많은 기업들은 외환손익을 단일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IFRS 18은 외환차이를 손익계산서에서 각각 다른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 위하여 변화된 통합과 세분화에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금 – IFRS 18을 적용하는 일반기업은 현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투자 범주로 분류할 것입니다. 만약, 외화차입금을 위한 경제적 위험회피수단으로 외화를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손익계산서에서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이와 '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 또는 경제적 위험회피수단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재무 범주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수단 손익의 분류

기업은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예를 들어, 노출된 위험의 관리 또는 매매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IFRS 18을 적용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의 분류는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출된 위험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노출된 위험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보유(예를 들어, 외환위험, 상품가격 또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목적)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금융상품	손익	
	파생상품	비파생 금융상품
IFRS 9과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하는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 다만, 손익을 총액계상해야 하면 영업 범주	
위험회피수단으로 비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하는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 다만, 손익을 총액계상해야 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면 영업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대하여 일반규정 적용

노출된 위험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

위험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이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와 관련된 외환차이는 재무 범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PwC 견해 – 파생상품 손익

손익의 총액계상 – 기업이 영업 범주로 표시되는 수익과 재무 범주로 표시되는 이자비용의 순외환위험을 모두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IFRS 18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파생상품의 손익을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로 표시하는 것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총액으로 계상되고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보다 큰 금액의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별항목 – 현행 IFRS는 파생상품의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어떤 개별항목으로 표시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실무적 관행이 존재합니다. IFRS 18이 적용되면, 일부 기업들은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FRS 18에 따른 기타 변화

IFRS 18에 대한 기타 변화는 '[In brief - IFRS 18 제정 – 재무성과 보고방식의 재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측정지'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영업비용의 기능별, 성격별 분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
- 통합과 세분화에 대한 강화된 요구사항
- IAS 7 '현금흐름표'에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회계정책의 제거. 개정된 IAS 7을 적용하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요 사업활동이 아닌 기업은 배당의 지금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자와 배당에 대한 수취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그리고 이자에 대한 지급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IFRS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포함하여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이 필요하므로 IFRS 18에 따른 비교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록 – 예시

(1) 일반적인 기업의 손익계산서 예시

손익계산서 - 일반기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수익	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영업 범주
판매비	(X)	
일반관리비	(X)	
연구개발비	(X)	
영업손익	X	필수 중간합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손익	X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X	투자 범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	X	필수 중간합계
차입금 이자비용	(X)	
기타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X)	재무 범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X	
법인세비용	(X)	법인세 범주
계속영업이익	X	
중단영업손실	(X)	중단영업 범주
당기순이익	X	필수 중간합계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